

# 해외석유개발사업 현황과 정책방향

마 삼 열

〈통상산업부 석유개발과장〉

## 1. 해외석유개발사업 현황

해외석유개발은 70년대 석유과동과 개도국의 경제발전으로 인한 석유소비증가 등으로 석유의 안정적 확보차원에서 적극 추진되었으며, 원유의 전량을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도 소요원유의 안정적인 확보가 국민경제성장에 직결된다는 인식이 고조됨에 따라 해외석유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국내기업의 해외석유개발 진출은 81년도부터 시작되어 87년 예멘의 마리브 유전개발의 성공에 힘입어 89~92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나 그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

로 96. 3월까지 23개 기업이 29개국 57개사업에 진출하여 29개사업은 종료되고 17개국 28개 사업이 현재 진행중이다. 특히 참여업체수를 살펴보면 92년도 17개를 피크로 감소 추세이며, 95년의 경우 참여사업수는 10개사업에 달하나 특정기업의 참여가 두드러져 실제 참여업체수는 유개공, 유공, 한화, 현대, 대성, 삼성, 한보 등 7개사에 불과하

다

투자액 측면에서 보면 해외석유개발사업에 대한 95년말까지의 총투자액은 1,489 백만달러이며, 투자회수액은 1,159백만달러로 약 80%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총투자액중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상의 석유개발용자가 348백만달러, 업계 자체조달이 1,140백만달러로 정부지원율은 23%를 차

〈표-1〉 진행사업 현황

	진출사업수	비 고
생산사업	5개사업	마리브(예멘), 칼다(이집트) 등
개발사업	3개사업	캡틴(북해), 폴랭(인니) 등
탐사사업	20개사업	산타빅토리아(아르헨티나), 이썬우에네(알제리) 등
계	28개사업	

〈표-2〉 투자현황

(단위 : 천달러)

	~92	1993	1994	1995	계
기금융자	183,164	59,422	27,763	78,131	348,480
자체조달	848,897	120,359	95,515	75,685	1,140,456
계	1,032,061	179,781	123,278	153,816	1,488,936

지한다.

다음 탐사성공율과 자주개발 원유 확보측면에서 살펴보면 지금까지 진출한 탐사사업 52개 사업중 3개 사업이 성공되어 성공율은 6%로서 전세계의 평균 성공률 5%와 비슷한 수준이며, 우리나라의 해외석유 개발원유량은 95년말까지 총 64백만배럴, 95 당해년도는 7백만배럴로 국내 원유수입량의 1.2%밖에 안돼 향후 개발 및 생산유전의 매입을 통한 자주개발 원유 확보량의 증대가 요구된다.

## 2. 해외석유개발 진출상의 문제점

### 가) 탐사사업과 비운영사업 중심 진출

우리나라의 해외석유개발진출은 탐사사업으로 시작하여 성공한 마리트 유전 참여이후 석유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수익성과 함께 위험성도 큰 탐사사업 위주로 석유개발이 이루어져 57건 진출중 52건이 탐사사업이다. 이에따라 정부의 지원정책도 성공불 용자 중심의 탐사사업 위주로 이루어져 개발사업이나 생산유전 참여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부족하였다.

지금까지 참여한 57건의 유전개발 진출중 운영권자의 참여는 8건에 불과하여 사업 전반에 대한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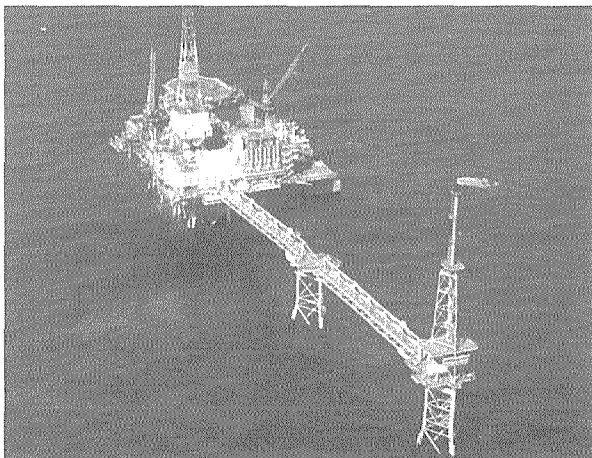
술.경험 축적의 기회가 적었고 비운영사업에 단순 참여함으로 인해 단순 투자 수준에 머물게 됨으로써, 전문 석유개발기업 육성이 되지 못하였다.

### 나) 민간기업의 석유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의욕 저하

국내 민간투자자들의 석유개발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 (고도의 기술 및 자본집약사업, 투기성이 높은 사업, 자본 회임기간의 장기화)과 조급한 투자회수 심리 팽배이다. 즉 꾸준한 기술능력 배양과 지속적인 투자로서 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투자비를 회수하고 이윤을 창출하겠다는 최고 경영층의 석유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마인드가 부족하여 투자 우선 순위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비해 매우 낮았다. 따라서 해외석유개발사업이 단기적으로 크게 확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다) 전문기술인력 부족과 정보수집 미흡

국내 석유개발 전문인력은 탐사에서는 독자 작업 수행이 가능하나 절대인력이 부족하며, 개발분야의 전문인력은 극소수이고 생산분야는 경험이 거의 없어 전반적으로 전문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못하며 기술수준이 낮은 편이다. 그리고 우리 업계가 해외석유개발에 참여하는데 있어 사전조사에 필요로 하



는 정보는 대부분 외국석유회사나 해외정기간행물로부터 일반적으로 제공받는 수동적인 정보수집체제로서 해외석유개발시장에 관한 정보수집기능이 미약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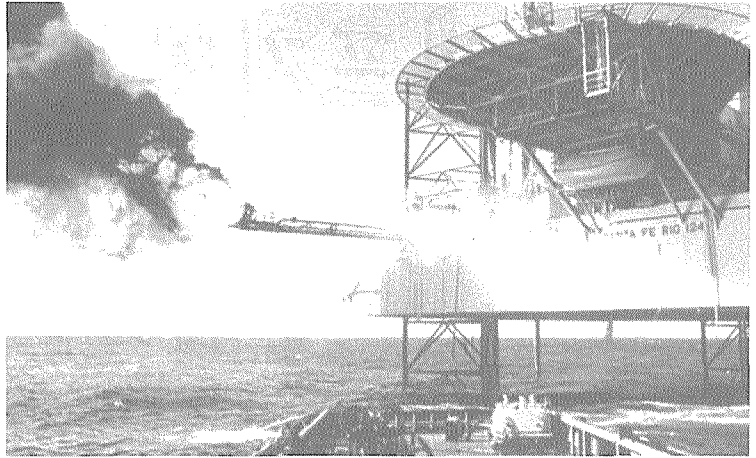
### 3. 해외석유개발 정책방향

#### 가) 석유개발자금 용자지원 제도개선 및 자금 규모 확대

정부는 해외석유개발사업의 지원 확대를 위하여 석유개발사업에 지원되고 있는 사업비의 용자비용을 상향조정하고 용자대상도 광구이권 취득비, 지분매입비 등을 포함하도록 용자고시를 개정하였으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재원의 확보를 추진할 것이다. 개정된 용자고시 내용은 탐사사업의 용자비용은 50~70%에서 60~80%로 개발 및 생산유전의 참여사업은 40%에서 50%로 각각 상향조정 하였다.

한편 개발 및 생산유전 참여사업에 대한 재원조달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개공이 사업자금을 확보하여 해외 차입시 채무보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97년 에특예산에 채무보증기금 소요예산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나) 민간기업의 투자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강화 해외석유개발 참여업체에 대한



해외석유개발사업 관련 정보의 신속·정확한 제공으로 투자의 성공율을 제고시키고 투자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급 정보수집 비용에 대한 정부지원의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외석유개발업체들에 긴요한 정보자료의 획득, 소요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 업계 공동으로 활용토록 하고, 민간기업이 단독으로 참여한 광구에 대하여는 한국석유개발공사에서 기술 검토를 제공토록함과 아울러 국내외 전문가 초청 및 세미나를 통해 기술 수준을 제고시키고 민간기업의 석유개발 전문가를 양성키 위해 한국석유개발공사와 자원연구소를 통하여 실무연수 교육 추진을 검토할 것이다.

#### 다) 석유개발 진출전략의 다변화

정부는 국영석유회사인 한국석유개발공사로 하여금 석유개발사업

참여에 있어 탐사사업과 병행하여 개발 및 생산유전의 매입을 적정히 안배토록하고, 신규 광구의 성공을 제고를 위해 단순 지분 참여 제의에 의한 참여방식 대신 국제입찰 또는 산유국과 직접 협상에 의한 광구 확보 방향으로 추진토록 할 것이다. 아울러 사업의 운영권자로 참여하여 기술과 경험 축적은 물론 석유개발에 수반되는 건설, 자재, 수송 등 연관산업 진출을 통한 사업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국내기업이 산유국에 진출하여 석유를 개발·생산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산유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 유지가 필요할 것인바, 이를 위해 정부차원의 교섭에 의한 산유국과 자원협력위원회 구성·추진과 아울러 산유국을 방문하는 등 자원협력 외교를 강화할 계획이다. ♣